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 지역 장기거주 가산 및 거주지 응시요건 강화, 신규공무원 마약류 검사 도입 등 -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 가점제도가 신설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이 강화된다.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응시 기회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만 했던 마약류 채용 신체검사가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소방청(청장 김승룡)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수도권 외)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 (국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 7급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 수도권 포함), **(경찰소방)** 순경소방사 공채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해 가점으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 달랐던 응시요건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에 한 해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통일·개선한다.

거주지 요건 개선 관련 시행은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 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째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 후 '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27년 8%, '28년 10% 수준으로 점진 확대한다.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구분모집 대상 직류 역시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까지 확대한다.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해 시행 중인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추천 대상을 넓힌다.

보다 많은 지역 청년이 추천될 수 있도록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 역시 추천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최종시험예정일 기준)에서 3년 이내까지 변경한다.

아울러, 현재 9급 대상만 운영하던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현행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 우수 인재 공직 진출 지원

우수 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힌다.

기존 경력에서 제외됐던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해 경력 부담을 줄인다.

또한,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채용 분야에는 필요 경력을 기존 대비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년 이상인 기준경력이 조정 불가능했지만, 유연한 적용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력 채용에서는 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우수 인재의 공직 조기 진입을 유도한다.

이 밖에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추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일반직·외무 공무원도 마약류 검사해야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제도 다변화로 지역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총괄>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안현식 (044-201-8210)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044-201-8215) 최지환 (044-201-8208)
담당 부서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책임자	과 장	한인희 (044-201-8370)
		담당자	사무관	허기훈 (044-201-8374)
담당 부서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책임자	과 장	이 은 (044-201-8320)
		담당자	사무관	윤정민 (044-201-8383) 최경화 (044-201-8380)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석 (044-205-3341)
		담당자	서기관	오연순 (044-205-3342)
담당 부서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책임자	과 장	정한규 (02-3150-2032)
		담당자	경 정	김영만 (02-3150-2333)
담당 부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책임자	과 장	유병욱 (044-205-7280)
		담당자	소방경	허문구 (044-205-7292)

붙임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

구분(도입 시점)	현행	개선안	비고								
①지역 가점 도입 (법령 개정 후)	○ <신설>	○ 근무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시, 응시 지역(수도권 제외)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만점의 3% 가산 *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포함 가능	국가(9급 지역 구분모집) 지방(인구감소지역 경찰(순경) 소방(소방사))								
②거주지 관련 응시요건 강화 ('27년/경찰·소방 '28년)	○ 직종별·직급별 응시요건 상이	○ 직종별·직급별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 강화·통일	국가(5-9급 지역 구분모집) 지방(7급이하) 경찰(순경) 소방(소방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현행 (요건 중 택 1)</th> <th>개선 (요건 중 택 1)</th> </tr> </thead> <tbody> <tr> <td>국가</td> <td>· (5급) ①1년 이상 거주, ②학교 출신 시험시행연도 1월 1일 포함 연속 3개월 이상 거주</td> <td rowspan="3">→ ②지역 소재 학교 출신 ③시험시행연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거주</td> </tr> <tr> <td>지방</td> <td>· ①3년 이상 거주, ②최종시험일까지 거주</td> </tr> <tr> <td>경찰·소방</td> <td>· 지역별 거주지 제한요건 없음</td> </tr> </tbody> </table>	구분		현행 (요건 중 택 1)	개선 (요건 중 택 1)	국가	· (5급) ①1년 이상 거주, ②학교 출신 시험시행연도 1월 1일 포함 연속 3개월 이상 거주	→ ②지역 소재 학교 출신 ③시험시행연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지방	· ①3년 이상 거주, ②최종시험일까지 거주	경찰·소방
구분	현행 (요건 중 택 1)	개선 (요건 중 택 1)									
국가	· (5급) ①1년 이상 거주, ②학교 출신 시험시행연도 1월 1일 포함 연속 3개월 이상 거주	→ ②지역 소재 학교 출신 ③시험시행연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지방	· ①3년 이상 거주, ②최종시험일까지 거주										
경찰·소방	· 지역별 거주지 제한요건 없음										
③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확대 ('27년)	○ (인원) 9급 선발인원 대비 6% ○ (대상) 일반행정·세무 직류	○ 선발인원 점진 확대 * ('27년) 8% → ('28년) 10% ○ 고용노동·통계 직류 등 확대	국가								
④지역인재 추천요건 완화 ('27년)	○ (7급)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 (7급) 학과성적 상위 15% 이내	국가 지방								
	○ (9급) 졸업 후 1년 이내 ○ (지방) 9급 대상 운영	○ (9급) 졸업 후 3년 이내 ○ 대상 직급 7급까지 확대									

2 우수 인재 공직 진출 지원

구분(도입 시점)	현행	개선안	비고
①경력채용 요건 완화 (법령 개정 후)	○ 자격증 취득 전 경력 불인정 ○ 개인사업자 경력 불인정 ○ 기준경력(3년 이상) 조정 불가 ○ 학위소지자만 응시 가능	○ 자격증 취득 전 경력 인정(50%) ○ 개인사업자 경력(창업 등) 인정 ○ 특수 분야 1년 이내 단축 가능 ○ 학위취득예정자도 응시 가능	국가 지방
②민경채 7급 선발규모 확대 ('26년)	○ '25년 기준 117명 (지속 감소 추세)	○ '26년 기준 150명 이상 선발 예정	국가
③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확대('27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	○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보호기간연장청년 추가	국가 지방

3 일반직·외무 공무원 마약류 검사 도입

구분(도입 시점)	현행	개선안	비고
①마약류 검사 (법령 개정 후)	○ <신설>	○ 신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시 마약류* 6종 검사 실시 * 필로폰, 대마, 아편, 엑스터시, 코카인, 케타민	국가 외무 지방